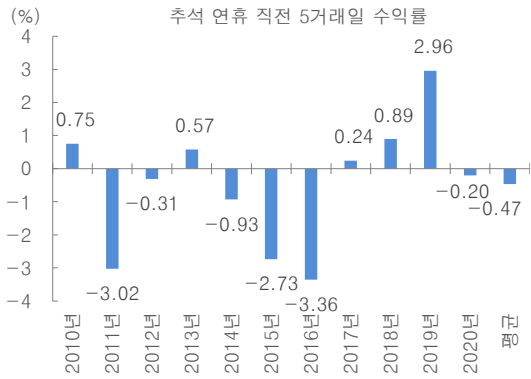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 체크 포인트와 투자전략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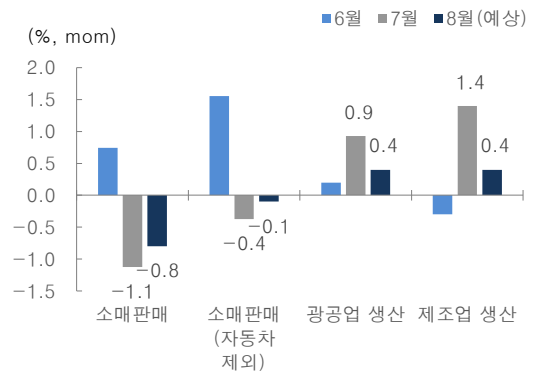
-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추석 연휴는 5일로 긴 편이고, 추석 연휴 직후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 2010년 이후 추석 연휴를 앞둔 한 주 동안 KOSPI는 부진했다. 주간 수익률 평균은 -0.47%로 12번 중 7번(58%) 약세를 보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장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연준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립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조합이 형성될 것이다. 특히, 이번주 미국과 중국 실물 경제지표 발표, 추석 연휴 직후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어 경계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
- G2 실물경제지표는 경기둔화 우려가 더 크다. 미국은 소매판매 감소세(8월 -0.8%, 7월 -1.1%, 전월대비 변화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반적인 경제지표 둔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광공업 생산(8월 +0.4%, 7월 +0.9%, 전월대비 변화율)은 3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고,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72로 상승(8월 70.3)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기저효과, 정책효과 약화/소멸에 의한 등락은 불가피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연말 소비시즌을 감안할 때 미국/글로벌 소비 또한 개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기저효과 소멸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전년대비) 둔화 폭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기준을 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도 대기하고 있다.
- 현재 G2 경제는 소순환 사이클에서 둔화는 맞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추세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저점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경제지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져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향후 예상, 컨센서스보다 양호한 경제지표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9월 FOMC에서는 점도표에 주목한다. 2023년 점도표(현재 두 번 금리인상) 변화를 체크하는 한편, 처음 공개되는 2024년 점도표 레벨이 중요하다. 금리인상 가속화 시그널이 아니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에 그칠 전망이다. 테이퍼링이 시행되더라도 향후 1년 정도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것이고, 통화정책 전환 여부는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다.
-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둔데 따른 KOSPI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로 생각한다. 기존 불확실성에 G2 경제지표 결과 및 9월 FOMC 경계감, 연휴를 앞둔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가세하며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하지만, 4/4분기 재고축적 수요와 연말 소비시즌 모멘텀에 대비한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KOSPI 3,100선에서는 평정심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변동성이 커질수록 대응강도를 높여간다는 여유 있는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그림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KOSPI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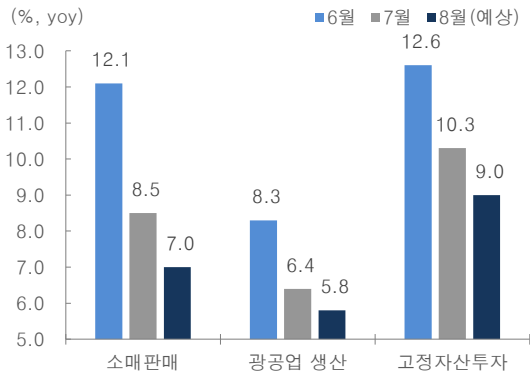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8월 미국 소매판매 감소 Vs. 산업생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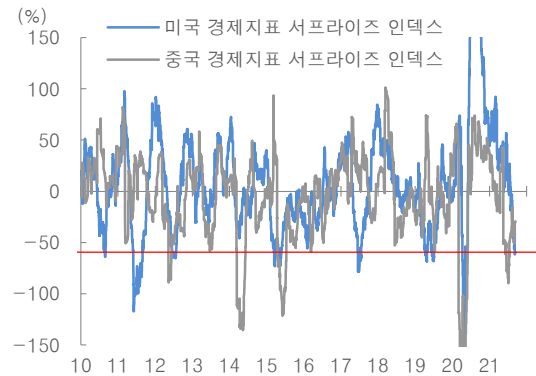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중국 경제지표 둔화 지속. 둔화 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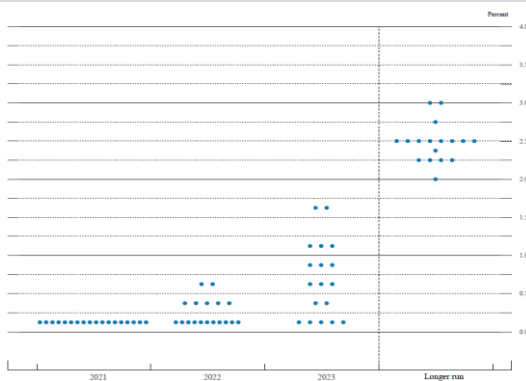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저점권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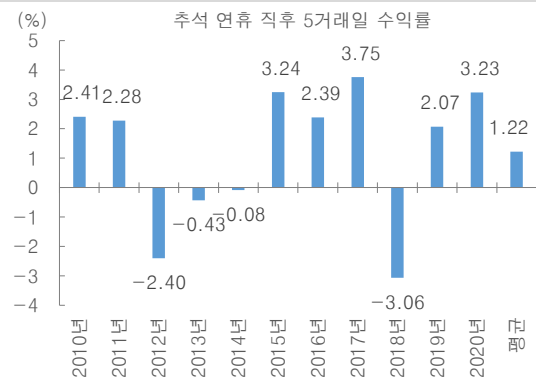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6월 FOMC 점도표, 23년 변화와 처음 공개되는 24년 점도표 레벨 체크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추석 직후, 불확실성 완화/해소로 강세?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